금주법구
한가지 선심(善心)을 닦으면
백가지 악을 깨는 결과가 된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
-열반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천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수정리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천혜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월 24일 수요일(주간) 제 304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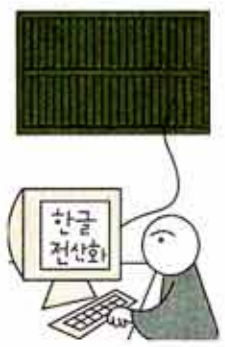
노스님의 대장경불사 '원력'

지난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는 서초구사암연합회 주최로 서초구민을 위한 신년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사는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스님은 지역기관장과 지역민 1천여명에게 30여분 법문을 하셨다.

"새해에는 나의 수행과 남을 위한 봉사, 즉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을 하나라도 진실되게 실천해 보라"는, 실천수행을 권하는 법문이었다. 간간히 특유의 유머가 실리고 새겨들어야 하는 내용이라 청중들은 어느새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법문 말미에 스님은 한글대장경에 대해 언급하셨다.

팔만대장경이 36년만에 다 한글로 번역되었다. 요새는 컴퓨터시대니 수정본을 만들어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전산화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전산화를 하는데 올해에만 7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간신히 4억을 받게됐는데 나머지 3억 마련에 불자들이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흔히들 '2천만 불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중 0.5%인 10만명이 한달에 1천원씩만 후원해 준다면 1억이 모입니다. 1년이면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 '돈 좀 달라'고 사정사정 할 필요가 없어요.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재정이 준비돼 잘 하고 있다고 도리어 정부를 향해 자랑할 일이 되지요." 스님은 평소에도 한글대장경 완간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그것을 삶의 체험으로 승화시킨 숱한 선지식들의 마음자리에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니 불자들, 나아가 국민들이 경전을 일상에서 손쉽게 읽을 수 있고, 불교연구도 보다 활성화 될거라고 기뻐하시며 많이 보급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커피 한잔 사먹으려고 해도 보통 2천~3천원을 주어야 하는 요즘이다. 또 불자들은 사찰에 가서 1만원을 주고 기와불사도 하고 범종이니 탱화, 법당 건립



불사에도 정성을 모은다. 그렇게 사찰불사에 쏟는 마음으로 한글대장경 불사에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는 것이 바로 스님이 강조하시는 점이다.

평생을 역경사업에 몸바친 것도 부족해 70이 넘은 노구에도 전국 어디든 법회에 초청받으면 역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원을 당부하시는 월운스님. 한글대장경 보급과 전산화를 위한 노스님의 끝없는 원력에 새삼 머리가 숙여진다.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인터넷 불교비방 '극심'

사찰 · 불교단체 사이트 무차별 침범
스님과 불경교리 등 비하 · 왜곡 일삼아

정부 '통신망 명예훼손법' 제정 시급

인터넷사이트와 언론의 불교비방이 도를 넘고 있어 교계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증거보전이 어려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미국이나 영국처럼 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법을 정부에서 제정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ona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불교비방사이트 '안티불교'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세계일보가 통일교를 선교하기 위해 불교와 부처님, 성철스님을 모독하는 '영계리포트'를 제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겨레의 혼, park8866, p886644, l@l, 부처, 법수호,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네플 등 검색엔진과 종교화해사이트, 사찰 및 단체의 불교사이트 게시판을 돌며 불자들을 현혹하여 안티사이트로 인도하거나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검색엔진인 야후와 라이코스코리아에 등록돼 있는 '안티불교'는 △조작된 불경 △윤회의 모순 △부처님 비판 △가난해지는 불교 △불교의 폐단 △승려들의 범죄 모음 △돈에 찌든 조계종 △사리의 속임수 △부처는 귀신 △불교 비판글 모음 등 어처구니없는 불교비방글들이다.

수록된 내용들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무시하고, 왜곡과 비방을 위해 불교교리를 각색하는가 하면, 기사와 출판물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놓아 일반인들과 초심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엽씨(전북불교대 사무처장)는 "안티불교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토론방 게시판 기능도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훼불이 극에 달한 만큼,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교계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국운융창과 국민대화합을 기원하는 신년법회에 참석한 불교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두손을 모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1천여 사부대중 "국민화합" 기원

종단협 신년법회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9일 서울부암동 하림각 특설법회장에서 신년대법회를 봉행하고 국운융창과 국민대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26개 종단 총무원장을 비롯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민주당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김태호 불자회장,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청불회 회장) 등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원화기원사(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할 때일수록 수처작주(隨處作主)하는 주인정신이 필요하다"며 "분별심을 버리고 화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한길 문화부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으로 민족의 안위와 번영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불교계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초 대정사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상생과 화해의 시대가 이 땅에 나투어 한민족의 평화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정성운 기자

설 연휴로 1월31일자 신문 쉽니다

총지종 12대 통리원장 혜암종사 선출

총지종은 18일 총지사에서 제12대 통리원장에 부산 경남교구장인 혜암종사(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혜암 통리원장은 1935년 生으로 중앙종회 부의장, 통리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울산 실보사 주교로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이경숙 기자

해인골프장 못 짓는다

서울고법 불허판결 "건설반대 10년 결실"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이 10여년만에 최종 결실을 맺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제4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19일 원고인 가야개발(주)측이 피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인골프장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91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상 최초로 백만인 서명을 달성한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골프장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공공자산인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립공원보존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이와관련 환영을 표하고,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건축개발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불교 지사 · 지국 모집

불법 홍포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신문 홍보와 구독 확장, 광고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1. 모집 지역(11개 지역)
강원북부 : 춘천, 홍천, 양구 일원 / 강원남부 : 원주, 영월, 정선 일원
경기 :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 충주, 제천, 진천 일원
충남 : 서산, 당진, 아산 일원 / 경북 : 문경, 상주, 예천 일원
경남1 : 진주, 산청, 거창 일원 / 경남2 : 울산, 양산 일원
전남 : 순천, 여수, 보성 일원 / 전북 전역 제주 전역

2. 활동영역
관할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및 광고 영업
본사 수익 사업 추진

3. 제출서류 및 기한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 한 : 2001년 2월 17일(토)
방 법 : 우편(기간내 도착분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직통전화 (02)737-0090 대표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불교사찰의 모든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 02) 737-[illegible]
Fax : 02) 737-[illegible]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02-725-2030 / 725-2040

'신행수기' 시상식
때: 2월 3일(토) 오후 2시
곳: 조계사 문화교육관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